

데스크시각

박진현



“미국 정치에 일대 지진이 일어났다” 지난 2005년 7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 여성 연방대법관의 사임을 았다투어 대서특필했다. 주인공은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산드라 데이 오코너(77). 알츠하이머에 걸린 남편의 간병을 위해 24년간 임은 법복을 벗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법조인들의 꿈인 연방대법관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사실은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만한 빅 뉴스였다.

머티브 액션' 때문에 불합격했다며 미시 간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신을 뺀 나머지 연방대법관 8명의 의견이 4대4로 갈라져 사회적 약자 입장인 합헌 쪽에 표를 던진 것이다.

'알파우먼' 없이 '알파걸' 없다

하지만, 미 언론들이 '지진'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보여준 'Pivotal Role(중추적 균형추 역할)'이었다. 종신제인 9명의 대법관 중 한 명으로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균형의 묘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여성 최초 연방대법관 오코너

지난 2003년 6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계 우대규정)'의 합헌판결은 이런 오코너의 변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다. 백인 학생 3명이 '어퍼

이 같은 성향은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아야 했던 남다른 과거(?)에 기인한다. 법조인으로서의 그녀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고, 스탠퍼드 로스쿨을 3등으로 졸업했지만 그녀를 받아주는 로펌은 없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에리조나의 한 로펌 법률담당 비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둘째 아이를 낳길 곳을 찾지 못해 육아휴직(1960~1965년)을 택했다. '육아휴직=평생 실업'이나 다름없던 당시 오코너는 자신만의 '재취업 백서'를 만들었다. 전업주부로 지내더라도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해 자신

의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변호사 시험을 채점하는 자원봉사였다. 스탠퍼드 출신으로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에리조나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공개 업무를 다루면서 부터는 지역 변호사와의 교분을 쌓았다. 5년 동안 크고 작은 일을 거치면서 오코너는 에리조나주 공화당과 인연을 맺게 됐다.

지난 1981년 오코너의 열정에 감명받은 레이건 대통령은 "출산으로 5년 동안 권 적이 있고 연방직책을 맡은 경험이 전

무하다"는 측근들의 거센 만류를 뒤로하고 그녀를 여성대법관에 앉혔다.

오코너의 스토리는 유능한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딛고 사회의 '주류'로 살아남아가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보여준다. '알파걸'(모든 면에서 포레의 남학생보다 뛰어난 여학생) '골드 미스'(결혼전력기를 넘긴 전문직 여성)라는 신조어가 뜰 만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고 있지만 현실은 꼭 장미빛 만은 아니다. 육아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한국의 오코너'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올해 여성주간(7월1~7일)을 맞아 발

표된 각종 통계 자료들은 이 같은 상황을 잘 말해준다.

알파걸 울리는 육아부담

최근 여성부가 발표한 '2007년도 여성 관리자패널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여성 인력의 89.4%는 평사원이나 대리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임월급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341개 기업 중 부장 이상 여성관리자가 전혀 없는 곳이 절반을 넘었다.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은 74%에 달했다. 20대 알파걸들이 양성평등과 모성보호를 배려하지 않는 직장환경에 밀려 알파우먼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여성 취업자 1천만 명 시대,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알파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30대, 40대로 접어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공공연한 성차별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뿌리깊은 남성 중심의 관행이 머물러 있어서 하나 둘 자취를 감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알파걸이 알파우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여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곧 '시한부 알파걸' 양산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알파걸 역시 휴직기간을 경력 단절이 아닌, 재현연의 기회로 삼은 오코너의 지혜를 배워야 함은 물론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시설

쇠고기 원산지 표시 실효성이 관건이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어제부터 의무화됐다. 전국의 식당과 급식소 등 모든 쇠고기 취급 음식점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 64만3천여 개 업소다. 원산지 표시제가 과연 정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100㎡ 이상 중·대형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에 대해 '하위표시' 및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하위표시'는 단속하되 '미표시' 행위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시장이 개방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팽배하다. 외국산 식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한우농가를 보호하는 장치이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극심하다. 쇠고기를 사용한 국과 반찬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영세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허둥대고 있다. 단속 인력과 장비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0㎡ 미만 소형 음식점은 아예 신고 및 포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영세 상인들을 범죄자 취급해선 안되겠지만 단속 의지의 후퇴로 여겨진다. 광우병 파동 등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고조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시늬만 내어서는 제도는 정착될 수 없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정부는 계도기간동안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일방백제 의지도 다져야 한다. 위반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고발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기초의회 파행운영 원구성도 못해서야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1주일일이 넘도록 후반기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의원간 담합과 계파간 지분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27개 기초의회 가운데 8일 현재 6곳이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 보성과 장흥군의회는 의회 일정상 원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시 남구의회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나주시와 화순군, 신안군 의회는 의장선거를 둘러싼 계파간 갈등으로 후반기 개회도 못하고 있다.

기초의회의 파행은 특정정당의 싸움이나 자리 나눠먹기, 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반발 등에 따른 것이다.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감투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초의회의 파행은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더욱 심해졌다. 정당공천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측화를 불러왔고 독단 운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계

현실이다. 나주시와 화순군 의회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의 사전 낙점설이 불거지면서 계파간 갈등이 심화돼 파행을 못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른 기초의회도 사정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오죽하면 기초의원을 만나러던 의회사무실이나 지역구가 아닌 정당 사무실로 가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기초의회의 파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의원 자질 시비와 함께 원구성 때마다 특정 정당 싸움이, 자리 나눠먹기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기초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처럼 계파 간 자리다툼이나 감투싸움에 몰두해선 무용론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 후 첫 귀향 활동을 마치고 돌아갔다. '지구촌 대통령' '속세의 교황'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 더구나 192개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분단국가가 배출한 사무총장이 라는 점에서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다.

반기문은 선거 때는 물론 취임 초 약 소국의 서러움을 겪어야 했다. 우선 영 어 이름에서 곤욕을 치렀다. 유럽의 기자들의 선거운동 당시 이름의 끝자가 '문(Moon)'임을 들어 통 일교를 의미하는 '무니즘'(Moonism)과 관련지어다. 서구에서도 '미스터 반'(Mr. Ban)으로 부르며 은근히 규제 낱말 미국과 연결지어 펴뻬했다.

취임 1년7개월이 지난 지금 반 총장의 이름은 존경과 신뢰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미 메릴랜드대학이 최근 2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부시 미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주요 지도자 8명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반 총장이 평균 35%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 총장 특유의 부지런함과 끈기가 유엔의 수장으로서는 통한 것이다. 다 르푸르 사태에 적극 개입해 '아프리카 연합 혼성 평화유지군 파견'이라는 진전을 이뤘으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국제 관심사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반 총장의 갈 길은 아직 멀다. 반 총장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대부분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이제 21세기를 이끌 수 있는 자신의 새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만큼 반 총장에 거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상황은 반 총장에게 호의적이지 못하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으로 대한민국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슬기롭게 극복해주길 바란다" 모국 방문 때 현 정국에 대해 반 총장이 했던 말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반 총장이 지구촌 대통령으로서 더 큰 일을 하도록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반기문



기고

이현승



우리나라 원유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 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를 초과하는 등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그야말로 초고유가 시대다. 유가가 터무니없이 치솟다보니 에너지 수입국 세계 5위인 우리 나라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범국민 운동으로 펼쳐야 할 때다. 모든 국민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껴 쓰고 적게 써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히 놓쳐버리기 쉬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기사용 방법이나 전기요금 절감 방법을 소개한다.

하머 감풍은 미풍에 비해 20W정도 전력소모가 많다.

세탁기 사용엔 세탁물을 1회 분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하는 것이 좋다. 세탁량이 많으나 적으나 소모되는 전기량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세탁은 10분 이상 하면 더 이상 때가 빠지지 않고 전만 손상된다. 행구기 전에 반드시 탈수를 하고 탈수시간은 3분 이내가 적당하다.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힌 다음 냉장고에 넣고, 냉장고 안의 음식물은 용량의 6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냉장고 내로 음식을 10% 증가시키면 전기 소비량은 3.6%가 증가하며 뒷면 벽과

맥의 냉장고도 가득차 있나요?

에어컨의 경우 건강에 적절한 냉방온도는 26~28℃이며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는 5도 이내가 좋다. 온도를 1도 낮추는 데 전력은 약 7%가 더 소모된다. 또 사용강도에 따라서 30%정도의 전력 소비가 차이가 나며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냉방효과가 커진다.

컴퓨터의 전력 소모량은 모니터 크기나 제조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당 전력 소비량은 390W이며, 이는 백열전등(60w)의 6.5배에 해당된다. 컴퓨터는 장시간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컴퓨터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한다.

선풍기의 경우 2~3시간 이상 계속 사용하면 피부 수분이 증발돼 건강에 해롭다. 기기 자체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20~30분 간격의 타이머를 사용하면 효율적이다. 자연풍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꺼야

10cm 이상, 뒷부분의 차폐물로부터 30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고 냉장고 회계율이 0.35%의 전력소비가 증가된다. 조명등은 백열전구 대신 안장기 내장형 램프를 사용하면 절전이 된다. 고효율 조명기구를 사용하면 20~30%를 절감할 수 있다.

TV는 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일정량의 잔여 전력이 항상 소비되므로 TV를 보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아예 뽑아야 한다.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도 TV와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 휴대전화 충전기도 하루 사용시간이 적어 대부분을 대기전력으로 소모되므로 사용할 때만 플러그를 뽑아 사용해야 한다. 전원 플러그를 일일이 끄고 빼기 귀찮다면 멀티탭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방법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해 보자.

<한전 장성지점 요금관리팀장>

학창시절 추억 팔아먹는 동창 사칭 판촉 전화 '쓰쓸'

며칠 전 휴대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상대방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자기는 필자를 잘 안다고 했다. 필자는 그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문과와 이과로 나뉘져 있어 모를 수도 있었다 싶었다.

그 친구는 필자에게 어떤 일을 하냐고 물으면서 자신은 서울의 모신문사 주간지 마케팅팀에 근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미안한 부탁이지만 주간지 구독을 부탁한다고 운을 폈다. 그리고는 당시 동창들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는 친구들의 조합이 안돼 당혹스러웠다. 얘기가 길어지면서 그가 고교 동창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더 따져보니 동창을 사칭한 전화였다. 어떻게 필자의 휴대 번호를 알았는지, 동창의 이름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사기전화였다.

너무 황당했다. 십 수년전 아련히 떠오르던 동창에 대한 추억과 좋은 감정이 송두리째 뺏히면서 서글퍼졌다. 동창을 사칭한 것도 분명지만 동창을 연락처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도 의문이다.

동창을 사칭한 판촉 전화 역시 최근 유행하는 사기전화의 변종이다. '동창이다', '동문이다' 하면서 친구들까지 팔아먹고 추악의 소중함을 타락시켜서 씁쓸하다. <나윤성·광주시 남구 봉선2동

은펜칼럼

류동훈



연일 축발집회로 뜨거워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는 2002년에는 월드컵 축구를 응원하던 물결로 넘실되었다. 4강 신화가 이루어진 순간 도청 앞에 모여든 시민들과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뻐했던 추억이 있다. 바로 그 도청 앞에는 5·18의 아픈 기억이 있고, 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에는 최루가스의 눈물겨운 기억이 있다.

아마 금남로의 현대사에서 가장 즐거웠고, 행복했던 순간은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 진출이 없었을까? 앞으로 한국 역사상 4강 신화가 다시 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4강 추억의 광주에서 축구단이 사라진다고 한다. 상무

필까? 승부를 떠나서 축구를 즐기고 응원하는 사람들, 끝을 넣는 순간보다 끝을 넣은 이후에 펼쳐는 선수들의 감각 있고, 창조적인 세레모니가 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축구, 시민들의 응원 문화 콘서트와 창작 무용극같은 느낌을 주는 축구, 응원 구호 하나 하나가 위트와 풍자가 넘치는 문화작품이고, 쉬는 시간에는 지역 대중가수들의 콘서트가 진행되는 축구는 어떨까? 그래서, 승부와는 상관없이 시민들이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축구라면 지속적으로 많은 관객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기업들이 힘을 합치고,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으는 축구

광주 축구단과 히딩크

축구단이 계약이 만료되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비로 낸 40억원의 시비도 날릴 판이다. 광주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축구단 유지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대형히 축구단 창단을 결심해 준 기업이 있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축구단 유지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이다. 이겨야 흥행이 되고, 이를 위해 연봉이 높은 선수들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기업 이미지마저 마이너스가 되고, 경기장 수익금도 줄어들게 되어 축구단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발상을 바꾸어서 광주시민들이 만드는 축구단은 '이기기 위한 축구단'이 아니라 '즐거기 위한 축구단'을 만들면 어

단을 '아시아문화도시축구단'으로 만든다면 이 축구단이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누비며 '아시아문화도시 광주'를 홍보하고, 치열한 경쟁의 현대 사회에 즐기는 인생철학의 화두를 던지면 어떨까?

또한, 4강 신화를 이룩했던 '히딩크 감독'이 호주, 러시아에서 계속적인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시내 히딩크호텔을 중심으로 '월드컵 4강과 히딩크 기념관'을 만들어 전국에 월드컵 4강 추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관광명소로 만드는 방법도 좋다. 우리 선수들의 기념품과 히딩크감독의 기념품들을 전시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구현한다면 광주의 추억이, 역사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 상품이 될 것이다.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2006년 1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반값 세일 손실비용 소비자에게 덤터기

동네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50% 할인된 반값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마트 주인 말로는 50%의 비밀은 유통과정에서 있다. 대리점과 지역 영업소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인데 대리점에서 연간 목표액을 정해놓고 달성하면 성과급을 추가로 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 소매점에 공급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또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게 반값 아이스크림의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이익이게 보이는 이같은 반값 상품에는 문제가 있다.

일단 반값 판매로 소비가 급증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업체에서는 중량을 줄인다. 아니면 슬그머니 가격 인상을 꾀한다.

결국 반값에 따른 손실비용도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유통업체의 도덕성과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안효령·광주시 북구 장동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浩樂		www.kwangju.co.kr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